

신앙 성장 시리즈 40



금보다 더 귀한 지혜

Better than Gold



한국오늘의양식사

차 례

신앙 성장 시리즈 40

금보다 더 귀한 지혜 Better than Gold

© 2008 RBC Ministries,
Grand Rapids, MI, Printed in USA.

인 쇄 : 2013년 08월 21일
발 행 : 2013년 08월 23일
감 수 : 김상복
번 역 : 강희숙
교 정 : 신성훈
편 집 : 신영균
발 행 인 : 김상복
발 행 처 : 한국 오늘의 양식사
(031)780-9565~8
인 쇄 처 : 소망사
(02)392-4232

발간사	4
서 문	7
지혜의 필요성	9
사실적인 지혜	15
지혜의 의미	24
경고의 지혜	33
솔로몬의 지혜 이야기	40
다양한 충고에서 얻는 지혜	49
다른 종류의 지혜	56

표지 사진: 신상균의 "해바라기(아침고요수목원)"



삶을 변화시키는 성경의 지혜

우리는 지식은 범람하는 데 지혜는 모자라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같은 말을 하고 같은 일을 하면서도 지혜롭게 말하고 지혜롭게 행동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총애를 입고 삶의 풍성한 열매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듯이 지혜는 “금보다 귀한 것”입니다. 그리고 구하는 자는 누구나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구할 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지혜의 근본이십니다.

창조 이래 오랜 세월동안 하나님의 역사를 모아 기록해 놓은 성경 속의 수많은 사건과 수많은 인물들의 이야기 속에 들어 있는 지혜는 인간에게 주어진 보물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지혜와 땅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영적인 지혜와 육적인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사람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요셉, 솔로몬, 다니엘, 느헤미야, 바울, 예수님처럼 탁월한 지혜의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가 얻는 지혜 때문에 많은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13년 8월
한국오늘의양식사
발행인 김상복 목사

서 문

솔로몬은 삼천년 전에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잠 3:14-15)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넘치는 정보와 풀리지 않는 문제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솔로몬이 말했던 그 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 지난 몇 년 동안 내가 썼던 연작 논문에서 이 주제와 맞는 내용을 발췌하여 여기서 다루려고 합니다. 이 논문들이 왜 RBC에서는 선교를 “삶을 바꾸는 성경의 지혜를 모든 사람들이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하는지 여러분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틴 디 한 2세

지혜의 필요성



만약 내가 나 자신의 영적 여행의 일부를 보여주는 글을 쓸 수 있다면 그것은 아마 다음과 같이 전개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론,

잘 지내고 있으리라 생각하네. 나는 인생과 종교, 그리고 디트로이트 타이거에 대해 우리가 나누었던 대화를 그리워하고 있어. 자네가 필라델피아로 이사를 간 후 서로 연락을 계속하지 않았던 것을 많이 후회하고 있네.

이제 자네에게 이렇게 편지를 쓰는 것은 자네가 내 속에서 보지 못했던 지혜에 대한 필요성을 내가 보기 시작했기 때문이지.

아론, 나는 자네가 ‘하나의 단체로서 교회 교인들은 일반인 보다 나은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자신들은 더 낫다고 생각하더군. 내가 아는 최상의 사람들은 결코 교회의 문턱을 넘지 않는데.’라고 종종 말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네.

그 때 내가 자네와 논쟁은 했지만 자네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원, 고아원을 세우고 구제선교를 하는 사람들이 인류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유일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보도록 도와주었지.

나는 자네가 편집자에게 보낸 편지들을 기억하고, 인종차별주의의 오류, 전쟁의 해악, 환경오염 항의를 위해 자네가 걸었던 거리들을 기억하네.

자네와 마지막으로 대화를 나눈 이래 나는 세계여행을 충분히 하면서 비기독교 문화권 사람들의 선한 의지와 호의를 보았네. 다른 나라들에서도 우리나라에서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이 사랑하고 은혜를 베풀고 심지어는 인류에게 필요한 사안에 영웅적으로 맞대결하는 것을 보아왔어.

여러 해에 걸쳐 겪은 그런 경험은 내가 자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을 이야기할 때

다 자네의 눈 속에서 보았던 불신을 기억나게 했다네. 내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후 5:17)라는 사도 바울의 말을 인용했을 때 자네가 했던 질문을 기억하고 있어. 자네는 나에게 그 구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했지. 왜냐하면 자네는 교회 안에서 성장했고 직접 체험하여 이들이 모든 것이 새로워진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어.

아론, 나는 내가 듣기는 빠르고 말하기는 더디하는 사람이었었다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한다네. 지내오면서, 내가 자네에게 말했던 것에 대해 잘못되었다는 것을 나와 다른 사람들 속에서 충분히 보았다네. 그 과정에서 나는 이런 질문을 하기 시작했지: 만약 그리스도를 믿어서 사람의 마음이 바뀐다면 왜 그리스도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위선자나 독불장군이나 화를 잘 내는 모습을 드러낼까?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왜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변화를 만들어내기보다 신혼여행 단계 같은 변화를 일으킬까?

이 점에서 나는 나의 영적 여행에서 배운 것이 내가 결혼생활에서 배운 것과 아주 유사하다는 것을 인정하

네. 부부 중 어느 한 쪽이 변하지 않는 부분은 두 사람 모두에게 옮겨가서 양금으로 남게 되지. 독립적인 성향은 결혼 전이나 후에도 모두 나의 일부인 것처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기 전이나 후에도 나의 한 부분이지. 내 안에 있는 자기중심적인 성향은 아내가 내게 보이는 관심을 듣기 거부해하고 마찬가지로 또한 내 속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기 어렵게 한다네.

구원이나 결혼생활에서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것은 자동적으로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렸어. 내 인생에서 가장 큰 도전이었던 이 두 경우에 모두 나는 준비가 되어있지 않았네. 내가 미리 알지 못했던 것은 내가 만나게 될 가장 큰 적은 자아 중심적인 변화되지 못한 나의 성향이라는 것이었지. 결혼과 구원에서 오는 아주 경이로운 측면을 축소하려는 것은 아니야. 그러나 거기에 걸었던 기대가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나는 지금 볼 수 있네. 결혼하면 내가 아주 행복할 것이라고 기대했었던 것처럼 구원을 받으면 내가 아주 선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었지. 어떤 경우든 그리스도의 지혜를 배우고 거기에 따라 살지 않으면 이 두 경우 모두 나 자신의 인성이 나에

대해 벽을 쌓는다는 것을 나는 보지 못했던 거야.

아론, 나는 지금 우리가 나누었던 대화의 일부를 되짚어보네. 나의 전 생애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변화되었다고 추정할 것이 틀렸다는 것이 분명하네. 성경에서 언제나 우리에게 사랑하고 기도하고 정직하게 생각하고 정직하게 말하라고 권면할 때는 우리가 반대로 가려는 성향에 빠지려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떠올리지 못했어.

그렇다네 아론, 우리가 마지막으로 대화를 나누어 후에 나의 사고는 크게 달라졌다고 생각하네. 삶은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팍팍했다네. 뒤돌아보면 내 신앙이 자동적으로 나를 선한 사람이 되게 하거나 현명하게 만들지 않았다는 것이 내게 보이네.

이제 나는 결혼생활을 하는 것과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는 삶을 사는 것이 아주 유사하다는 것을 좀 더 분명하게 볼 수 있어. 어느 한 쌍이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고 목사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했다고 선언한다고 해서 그들의 사랑이 성숙한 것은 아니지 않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법적으로 흠없다고 선포하시지만 우리가 선하다거나 현명하다고 하

시지는 않는다네. 이 두 경우에 법적인 선포와 그 결과로 오는 삶의 질 사이에는 차이가 있네.

이제 나는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이 최고믿음의 순간에 있더라도 관계회복 모임의 멤버들과 그리 다르지 않다고 믿네. 우리는 모임에 참가하고 프로그램을 함께 진행하지.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하고 서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네.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하라.” (골 4:5-6)

아론,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그리스도의 지혜도 함께 나누어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나는 수년 전에 겨우 이해했다는 것을 알기 바랄뿐이네.

내 말을 들어주어서 기쁘네. 만약 자네가 원한다면 나는 기꺼이 자네는 영적여행 중에 어디에 와 있는지를 듣고 싶다네.”

사실적인 지혜



미술에서 사실주의자들은 사람을 그릴 때 흠이나 주름 흉터들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어 그립니다. 이상주의자들은 대상들을 그들이 그렇다고 상상한 모습이나 그런 모습이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모습들을 그립니다.

인생의 거친 노정에서는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합니다. 이상은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하고 사실주의는 우리에게 추진하는 힘을 줍니다.

지혜가 없으면 둘 다 불리한 면이 있습니다. 사실주의는 우리의 꿈을 대가로 치룹니다. 이상주의는 완벽한 결혼, 완벽한 직업, 혹은 완벽한 인생을 헛되이 추구하

는 우리의 세월을 소모하게 합니다.

이상주의와 사실주의가 믿음이라는 문제에서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결코 만족을 모르고 계속 요구하는 부모 같다고 이상적으로(관념적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현명한 조부모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조부모는 응석도 받아주고 연민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을 그리 심각한 대상으로 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줌으로 끝을 맺습니다(잠 9:10; 요일 4:18-19).

하나님은 그의 이상으로 우리에게 영감을 주시는 충분히 좋은 분이시며, 우리 모습 그대로 받으시는 충분히 은혜로운 분이며 우리를 찾으신 후 우리를 떠나지 않고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하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롬 11:33)

성경의 손상된 이상주의

완벽한 세상에서는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드라마의 시작과 끝입니다. 모든 것이 좋습니다.

창세기의 첫 장에서 우리의 첫 조상들은 순결함을 잃었고 영원한 생명을 잃습니다. 후에 그들의 첫 아들은 동생을 죽입니다. 그리고 좋은 날들과 나쁜 날들이 번갈아 이어지면서 희망이 일어났다가 소멸됩니다.

세상이 최초의 환경에서 더 멀리 멀리 표류하면서 낙원으로 돌아가려는 기대는 예언자 선지자들의 메시지에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에 의하면 언젠가 전쟁의 무기가 밭가는 농기구로 재활용되는 날이 올 것이며(사 2:4), 방어 능력이 없는 양이 안전하게 늑대와 나란히 먹을 것이라고 합니다(사 65:25). 이 환상에 더하여 신약에서 요한사도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계 21:4)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이상주의는 미래에 한정된 것은 아님

니다. 신구약 성경 모두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내 몸 같이 사랑하라고 요구합니다. 신구약은 “사랑”의 도덕적 규칙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도 강조합니다(갈 5:22-23).

어떤 사회에서도 위에서 말한 이상에 반대하는 법을 통과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또한 어떤 사람들도 지속적으로 이런 이상과 더불어 살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첫 조상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경고하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방법을 어떻게 배워야 할까요?(창 2:15-17). 하나님이 그들에게 먹지 말라고 경고하신 과일 한 조각을 먹은 죄를 물어 최초의 남자와 여자를 에덴동산에서 쫓아내신 하나님과 우리는 어떻게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믿음에 대한 아주 사소한 규칙위반으로 보이는 일에 대한 벌로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고통과 죽음을 받아들이게 하신 창조주에게서 어떻게 안전함을 느낄 수 있을까요?(창 3:16-19).

랍비들의 사실주의

1세기의 유대교에서 이 문제에 대한 한가지의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유대교의 랍비들은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어떤 율법을 지킨다면 전체 율법을 다 지킨 것과 같다고 가르쳤습니다.

첫 눈에,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이 접근은 합리적 해결책인 것 같습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그 누구든 모든 율법을 다 지킬 수는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아마도 어떤 규칙들을 어떤 시대에는 지킬 수 있거나, 적어 한 번에 한 가지 규칙은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현명한 율법 학자라도 이웃을 죽이지만 않는다면 그들로부터 훔치는 일은 정당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랍비들의 이 말에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우리의 의무에 대해 좀 더 심오한 의미가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들은 하나의 율법을 지키는 것에 대하여 같은 방법으로 나머지 율법도 존중할 것을 말하고 있을 것입니다.

야고보의 사실주의

율법에 접근하기 위해 “전체를 위하여 하나를 선택” 하는 방법을 취할 때 랍비들이 뜻하는 바가 무엇이었던지 어떤 선생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책임을 다르게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의 추종자였던 야고보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라고 기록했습니다(약 2:10).

우리가 지키지 못한 율법보다 우리가 지킨 율법에 집중하는 랍비들이 더 사실적으로 보입니다. 야고보서는 그 뒷부분에서 하나님의 이상에 대한 사실적인 지혜를 보여줍니다. 율법의 논리를 강조할 때 야고보는 이미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각 율법의 중심이 되는 사랑의 원칙을 기억하도록 사람들을 밀어붙입니다(약 2:12-13).

야고보는 그리스도의 추종자의 자격으로 야고보서를 썼습니다(약 1:1). 당신을 향한 야고보의 믿음을 보셨던 그리스도는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용서함과 자비를 받았기 때문에 야고보에게 이웃사랑의 이상을 추구하게 하셨습니다(2:8). 가장 사실적이고 이 땅으로 내려오는 방법으로 야고보는 그리

스도를 영접했던 사람들을 격려하여 그리스도의 마음을 보여주도록 권면했습니다(1:26-2:8).

야고보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 박해를 받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상처를 받고, 상함을 입고, 모든 종류의 고난과 유혹에 쫓기는 가운데서도 자신들의 믿음을 어떻게 보여줄지 알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지혜가 필요함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약 1:5)라고 썼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약 1:5)

야고보가 그의 편지를 읽는 사람들에게 알려준 지혜는 단순히 철학이나 학문적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괴로운 현실 상황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의 이상을 볼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주기를 원하는 지혜로운 통찰력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실주의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라는 평판을 얻었습니다. 다른 종교지도자들은 예수님과 대조적으로 죄인들을 도덕적 쓰레기로 간주하여 정죄하거나 분리시켰습니다. 복음서를 쓴 누기는 예수님이 지혜를 예수님과 죄인 사이의 우정의 연결 고리로 삼은 것에 주목했습니다. 누기는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 함을 얻느니라.” (눅 7:34-35)

시간이 흘러서야 예수님의 지혜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자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피하고 정죄했다면 예수님은 그의 삶을 바꾸는 지혜로 기억되지도 못했고 사랑받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파멸하는 삶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을 도덕적으로 비판하지 않고 친절하게 다독거렸습니다. 그는 다른 종교지도자들이 피하는 사람들에게 손

을 내밀었습니다. 그는 다른 성직자들이 함께 죽음에 사로잡히기 싫어하는 사람들과 먹고 마셨습니다. 그는 문둥병자를 만지셨으며 여자를 존경했고 어린이들을 사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를 친히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본보기와 가르침으로 예수님은 가장 고무적인 이상주의와 가장 어려운 사실주의를 결합시켰습니다. 최고의 원칙에 신실하고, 가장 망가진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의미로 본다면 어느 곳에서도 이보다 더 나은 그림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의롭다하는 자들에게 도덕적 이상주의의 논리를 강조했을 때 애정 어린 겸손함으로 했습니다(마 5:20-48). 그가 도덕률 대신에 자비를 베풀었을 때 그가 온 것은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 온 것임을 보여주었습니다(요 3:17; 12:47).

지혜의 의미



현 명해지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온라인 엘로로 페이지즈”를 광고하는 일련의 텔레비전 상업광고에서 배우인 데이비드 카라다인은 젊은 구도자의 구루(선생 혹은 영적지도자: 역주)역할을 합니다. 깨달음을 얻는 방법을 묻는 질문에 구루는 엘로북.컴에서 찾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구루는 자신의 학생들에게 모든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찾고 있는데 엘로북.컴에서 ‘무엇’과 ‘어디’만 치면 그들이 찾는 것은 무엇이든 찾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텔레비전 광고는 통찰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찾고 싶은 것을 얻기 위해 지식을 실용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지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접근하기 쉽다는 것을 제안하는 점에 있어서 상업광고도 역시 의미가 있습니다.

지혜에 접근하기가 그렇게 쉬운 일일까요? 우리가 이미 보았듯이 신약의 저자인 야고보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간구함으로 지혜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너무 좋은 것이어서 사실이라고 믿기 힘든 그 약속과 함께 그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약 1:5)라고 기록했습니다.

야고보는 딱 한 가지 조건을 달았습니다. 통찰력을 구하기 위해서는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려는 희망이 뒷받침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6-8절).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할까요?

야고보가 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그들의 신앙을 시험했던 어려운 문제들과 싸웠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합시다(약 1:2-3). 1세기, 그리스도를 따랐던 사람들은 아마도 종교적이나 사회적으로 박해라는 값을 치

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계속 서로 간에 꺾어야 할 실망과 환멸을 미리 보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했습니다(요 5:17). 그럼에도 몇 년 뒤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서로 심각하게 충돌했습니다(약 4:1-2).

예수님의 첫 추종자들이었던 이들은 예수님에게 속했던 사람들이지만 항상 예수님처럼 행동했던 것은 아님을 보여주었습니다. 편견과, 상처를 입히는 말들이나, 공공연한 위선으로 예수님의 가족과 친구들은 서로 원수처럼 행동할 수도 있습니다.

충돌이 난무했던 이런 상황에서 야고보는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가까이 있다는 것을 그의 편지를 읽을 사람들에게 확신시켜주기 위해 야고보서 도입부의 말씀을 썼습니다(1:5). 그러나 야고보는 지혜를 발견하는 방법보다 더 많은 것을 말했습니다. 편지를 마치기 전에 “아래”로부터 오는 지혜가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인식하는 방법을 보여주었습니다(3:13-17).

하나님의 지혜는 어떤 모습일까요?

편견이나 가난 같은, 시대와 상관없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문제들을 언급한 후 야고보는 그의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려고 준비한 지혜에 대해 3장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 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약 3:13-17)

“위로부터 온” 지혜를 구별할 수 있는 특징을 더 자세히 살펴봅시다. 야고보는 실천적인 통찰을 “성결”이라고 말했습니다. 야고보는 그의 편지를 읽는 사람들이 “위로부터 온” 지혜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자기중심의 욕망이 뒤섞이지 않는다는 것을 제일 먼저 기억하

기를 원했습니다 (3:14-17; 4:1-3).

지혜는 동기를 가지고 출발한다는 사실은 이 충돌의 한 가운데서 살면서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면 어떤 일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는 우리들의 눈을 뜨게 해줍니다. 만약 우리들의 기도를 직설적인 언어로 번역할 수 있다면 많은 사람들은 “내가 원할 때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만 하는지 제발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말할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 올바른 일로 보일지라도 야고보는 하나님의 지혜는 먼저 다른 질문들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당황하고 있을까? 내 용기는 어디로 갔을까? 무슨 동기로 내가 이 혼란을 일으켰을까? 나의 첫 번째이자 무엇보다도 중요한 목적은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가 나를 위해 주시는 그의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으면 행복을 위해서, 혹은 만족을 위해서, 혹은 안전을 위해서 내가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우리의 동기가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우리 안에 그

의 임재하심을 보여주는 범위 내에 있다면 진심에서 우리는 충돌에 대한 우리의 반응의 한 가지 방법은 “**화평**”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공명할 때 우리는 다툼보다는 참 화평을 갈망합니다. 비록 상황이 결코 다시는 이전과 같아지지 않을지라도 “위로부터 내린 지혜”는 원한이나 복수심이 어리석은 것임을 알도록 도와줍니다.

바르게 동기가 부여된 충돌을 덮는 화평을 평가할 수 있게 하는 지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지혜를 낳는 새로운 목표는 “**관용**”입니다. 고대 세계에서는 이 단어는 신하들을 대하는 위엄과 관대함, 자제력을 갖춘 권력을 가진 왕들에게 사용한 단어입니다.

오늘날에는 상호간의 실망과 상처 한가운데서 우리의 왕인 그리스도의 시민들이 왕 같은 관용의 정신으로 그리스도의 권위를 대표하는 지혜의 한 종류입니다. 듣는 귀와 부드럽고 너그러운 음성은 어려운 순간에 현실 상황의 열기를 낮출 수 있습니다.

강하고 의미심장한 목적이 있는 관용은 또 다른 지혜의 기초가 되는데, 그것은 “**양순**”입니다. 두 사람이 서로 얽혀 호각을 이루고 있는데 한 사람이 기꺼이 상

향을 포기함으로 구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대신 기꺼이 악을 선으로 돌려주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강함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상처를 입히는 사람에게 집중을 하기보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결실을 얻기 위해 끈기 있게 일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 결실은 “**공홀과 선한 열매**”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지혜에 굴복하면 평화의 열매를 기다릴 동안 우리는 은혜의 씨앗을 심은 참된 가치를 봅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통찰력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들에 대해 생각하도록 필요한 공간을 줍니다. 은혜로 인내하면서 우리는 서로에게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영향이 자라는 것을 경험할 시간을 줍니다.

우리는 근시안적이고 표면적인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반응하기보다는 지혜를 보여주는데 그 지혜에는 “**편견**”이 없습니다. 야고보는 그의 편지 앞부분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중에서 가난하고 부족한 사람들보다 부유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더 잘 대접하는 사람들에 대해 썼습니다(2:1-10). 그러나 3장에서는 편견 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반응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방

법입니다.

재물이나 사회적 지위나 외모가 주는 영향을 극복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임재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혜와 더불어 살 수 있는데 이 지혜는 “**거짓 없음**”입니다. 지혜의 일곱 번째 특성으로 확인된 이것은 나머지 여섯 가지 특성을 능가합니다. 야고보는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지혜의 완전함을 찬양하기 위해 사용했습니다. 야고보는 삶이 풍요로워지면 시기와 야망의 목표와 술수를 추구하는 동안 아무도 믿음의 언어를 말하고 싶어 하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야고보는 편지 첫머리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원할 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는데 도움을 주도록 지혜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1:2-5; 4:1-3). 하나님이 우리에게 통찰력을 주신 것은 우리를 인내심과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하기까지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지혜의 이런 특징들은 우리가 겪고 있는 충들을 우

리가 바라는 대로 즉각적으로 해결해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 바닥에는 전쟁의 욕구나 충동보다는 화평한 마음이 있습니다(3:18).

경고의 지혜



2006년 4월 한 남자가 엠파이어스테이트 빌딩에서 뛰어내리려 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안전요원이 그를 물리적으로 저지했고 뉴욕시 경찰이 그에게 일급 무모한 위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나중에 판사는 그 남자가 다른 사람의 안전을 단계적으로 확인했음을 적시하고 사건을 기각했습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잭 콜리스였습니다. 그가 선택한 익스트림 스포츠는 낙하산을 등에 메고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구조물에서 뛰어내리는 것이었습니다. 엠파이어스테이트 빌딩에서 뛰어내리는 시도를 하기 전에 그는

쿠알라룸푸르의 페트로나스 탑, 에펠 탑, 금문교에서 점프한 것을 포함하여 3,000번의 점프에 성공했습니다.

더 위험한 도약

젼의 익스트림 스포츠가 아주 위험한 느낌을 주지만 우리가 모두 하고 싶어 하는 또 다른 종류의 점프만큼 위험하지는 않습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를 두고 지혜로운 방법에 대해 생각해보지도 않고 우리는 잘못된 결론으로 점프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러한 도약에 관한 고전적인 예를 보여줍니다. 기원전 1400년에 일어났던 이 일은 “첫 사건들” 중의 하나로 중요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전례를 만들었고 그 이후의 역사에서 경고의 목소리가 되었습니다.

7년 동안 계속된 “약속의 땅” 정복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요단강 동편에 정착했던 이스라엘 지파의 군인들은 가족들과 재회하기 위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수 22장).

이스라엘에 평화가 오고 있었는데, 요단강 서편에 정착한 몇 사람들이 요단강 동편 사람들이 큰 제단을

세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서는 정당성이 없는 장소에서 희생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요단강 “동편”이 이상승배에 빠졌다는 말이 빠르게 퍼졌습니다. 소문은 퍼져나가고 이 무모한 사건에 대한 열기는 불이 붙어 전 민족의 안전이 위험에 빠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바로 몇 년 전, 일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 신을 섬기는 일에 휩쓸렸을 때 하나님이 역병을 보내서 24,000명이 죽었습니다(민 25:9). 그 후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일으킨 신실하지 못한 행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가 나라 전체에 떨어졌습니다(수 7장).

그러한 국가적 위기들을 겪으면서 그들의 마음이 새로워졌고 서편 백성들도 재빨리 움직였습니다. 여호수아의 기록은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리 가려 하니라”(수 22:12)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로는 “쉬는 장소”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조국의 명예와 안전을 위해 내전을 치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현명한 조언

심판을 위한 돌격이 시작되기 전에 지혜가 우세했습니다. 시나이산에서 “택한 백성”의 조상들은 바로 그런 상황에서 해야 할 일을 그들에게 말해주는 율법에 동의했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공동체가 다른 신을 섬기기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면 그들은 “자세히 묻고 살펴 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에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에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신 13:14-15) 해야 했습니다.

이런 명령을 수행하는 가운데 서쪽 사람들은 사실을 확인할 사람을 뽑아 대표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이전의 위기 때에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던 사람에게 대표단을 이끌 것을 요청했습니다(민 25:1-9; 수 22:13-14).

기대하지 않았던 대답

대표단이 동쪽에 있는 형제들에게 도착했을 때 그들은 최악에 상황에 대비했습니다. 그들은 동쪽 지파들을 과거를 망각하고 국가 전체의 미래를 위협에 빠뜨렸다

고 비난했습니다.

그리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비난을 들은 후 동쪽 지파의 대변인들은 서쪽에서 온 대표단에게 자신들이 세운 제단에서 희생제사를 드릴 의도가 없음을 확신시켰습니다. 요단강이 동쪽 사람들을 나머지 이스라엘 사람들과 갈라놓았으므로 그들은 국가단합기념 제단을 세웠던 것입니다(수 22:24-27). 그들은 미래의 세대들이 하나의 국가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억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조사위원회가 본토로 돌아갔을 때 전 이스라엘이 회담의 결과를 기념했습니다. 제단은 서쪽에서 생각한 그런 제단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형제들의 말에 의하면 그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34절)였습니다.

만약 잘못된 결론으로 뛰어들도록 몰아쳤다면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것입니다. 가족들이 스스로 전쟁에 나갔을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이 그 지역에서 불명예스럽게 되었을 것입니다.

엠파이어스테이트 빌딩에서 뛰어내리는 일은 낙하산을 메고 한다고 해도 무모하고 위험한 일일지도 모를

니다. 그러나 결론으로 너무 빨리 뛰어들어 평판을 잃어버리거나 가족이 나뉘거나 전쟁이 일어나는 일보다 다른 사람이나 우리에게 더 위험한 일은 없습니다.

이스라엘 어린이들이 배웠던 것을 우리 안에서도 꼭 보아야합니다. 잘못된 결론으로 뛰어들 길은 너무나 많습니다. 다툼에서 한쪽 말만 듣거나(잠 18:17), 한꺼번에 묶어서 추측하면 안 됩니다(눅 7:34). 그리고 해를 입히는 확정되지 않은 정보를 사실인양 거듭 반복하는 것(수 22:11) 같은 이런 일들은 우리와 남에게 해가 되는 도약의 지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 하며 성내기도 더디 하라”(약 1:19)

만약 소문이 걱정이 될 만큼 충분히 중요하면 확인을 해야 할 만큼 충분히 중요하다는 것을 서로 깨우쳐 줍시다.

우리에게는 본성적으로 다른 사람에 대하여 최악의 상황으로 생각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이 성향에 따라 충동적으로 행동하면 우리 중 아무도 감당할 수 없

습니다. 우리는 모두 확인되지 않은 보고에 따라 행동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모두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 하며 성내기도 더디 하라”(약 1:19)라고 말한 야고보의 지혜를 들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 이야기



멀리 떨어져서 보면, 솔로몬을 이상화하기가 쉽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의 어마어마한 부와 영향력에 대해 이야기해줍니다. 그의 거국적인 건축 사업들은 그의 통찰력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가 세상에 대해 쓴 실질적인 잠언은 그의 지혜를 반영합니다.

가까이에서 보면 솔로몬은 우리와 우리의 하나님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할 수 있는 어렵고 험한 삶을 살았습니다.

부모의 추문

솔로몬은 그의 아버지 다윗이 밋세바와 결혼하여 낳

은 아들입니다. 그는 아버지의 어두운 면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어머니는 다윗 왕이 그녀와 불륜한 관계를 맺었을 때 다른 남자의 아내였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추문을 덮기 위해 죽임을 당했습니다.

주님이 솔로몬을 사랑하신 사실과(삼상 12:24) 그때까지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든 것은 성경을 통하여 확립된 원칙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 조상들의 죄에 대해 우리에게 책임을 지우지 않습니다.

분열된 가족

솔로몬은 가족의 충돌 와중에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죽게 되었을 때 다른 아내가 낳은 그의 장남이 왕위를 훔치려 했습니다. 아주 위험한 순간에, 밋세바가 끼어들어 왕이 그녀의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겠다고 한 약속을 왕에게 상기시켰습니다. 만약 왕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그녀와 솔로몬은 다윗이 죽은 후 다윗의 죄와 관련하여 멸시를 당할 것이라고 몰아쳤습니다(왕상 1:1-21). 솔로몬의 경험은 우리의 적은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계획을 행하시는 것을 막지 못한다는 생각을 기억나게 하는 증거였습니다.

타협으로 시작한 통치

솔로몬이 왕으로써 처음 한 일은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타협하는 분위기가 일어나게 한 것입니다. 통치를 시작하면서부터 솔로몬은 아버지의 전사로서의 명성을 떨쳐 버리기로 결정한 것 같이 보입니다. 이스라엘의 남쪽 이웃과 좋은 관계를 고무하기 위한 분명한 노력의 일환으로 그는 이방인인 이집트 바로의 딸과 결혼했습니다(왕상 3:1). 이에 더하여 솔로몬과 그의 사람들은 그들의 신들에게 가까이 가려는 의도로 그 땅의 사람들에게 의해 사용된 산당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왕상 3:2-3).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왕상 3:3)

그런 예배는 모세 이후로 금지되어왔던 것입니다(신 12:2). 그럼에도 솔로몬의 마음속에는 이스라엘의 주님을 위한 자리가 있었고 하나님은 그를 참고 계셨습니다. 그의 경험은 우리의 깨어진 세상에서는 하나님은 당신

을 명예롭게 하기위해 우리의 욕망과 함께 일할 수 있으며 심지어는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할 때도 그렇다고 상기시켜주었습니다.

성공으로 가는 수면

솔로몬의 가장 유명한 결정 중의 하나가 그가 잠자는 동안 일어났습니다. 우리들이 꿈에나 그러볼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그는 오늘날까지 특정한 기회에 그가 반응한 방법으로 기억됩니다. 하나님이 솔로몬 앞에 나타나서 그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주겠다고 제안했을 때 솔로몬은 부유함이나 장수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자신에게 맡겨진 국가를 이끌기 위해 듣는 마음과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을 구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기쁘다고 말씀하시며 솔로몬에게 이해하는 마음 뿐만 아니라 부와 명예도 함께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간과했던 것을 솔로몬은 잠자는 동안 그의 요구사항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모든 대화는 꿈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왕상 3:15). 그의 경험은 우리의 선택보다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 훨씬 더 많이 밀씀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할 수 있다는 것

을 상기시켜줍니다.

감동적이지 않은 공개행사

솔로몬의 지혜로운 일 처리에 대한 첫 기록은 거리의 두 여인의 슬픈 다툼을 정리해준 것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을 이끌어 세계 최상급의 지성과 재치로 상대하게 하여 그의 지혜의 은사를 공개하게 했습니다. 그보다도, 솔로몬의 기록된 지혜의 첫 행위는 두 창녀 사이의 싸움을 조정해준 것입니다. 두 창녀는 모두 최근에 아비를 모르는 아들을 낳은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어머니는 우발적인 죽음으로 아들을 잃었는데 이제 살아있는 간난 아기의 진짜 어머니라고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두 여인은 솔로몬 앞에서 그들의 문제를 조정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현대적인 과학수사는 없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인간본성에 대한 통찰력을 가지고 솔로몬은 진짜 어머니에게 아들을 돌려주었습니다(왕상 3:16-28).

솔로몬의 기록된 지혜로운 첫 행위는 우리에게 많은 사람들이 가치가 없다고 염두에 두지도 않는 부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애정을 갖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양면 보기

솔로몬은 우리에게 인간의 양면성을 보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두 여자에게 “아이를 반으로 나누라”라는 효과적인 협박을 곁들여 경고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솔로몬은 두 가지 반응을 발견했습니다. 한 여자는 다른 여자의 팔에 안긴 아기를 보기보다는 아기가 죽는 것을 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 여인은 아기가 죽는 것을 보기보다는 차라리 떠나보내겠다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인간 본성의 가장 선한 면과 가장 악한 면을 수면위로 떠올려서 솔로몬은 성가신 다툼에 정의와 자비를 가져왔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속에 있는 모정을 드러내는 능력이 우리에게 지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를 창조한 증거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리의 반역의 표현들 사이에서 좀처럼 없어지지 않는 상이함을 찾는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슬픈 종말

솔로몬의 지혜는 그에게 어리석은 역할을 하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가 가진 경이로운 통찰력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스라엘 왕에게 허용되지 않았던 일을 하는

것으로 끝을 맺었습니다(신 17:14-20). 특별히 금지된 길을 가면서 그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을 섬기는 일에 이스라엘 백성의 생명을 희생하였습니다. 난폭하게 방종한 행동을 했고 제멋대로 개인적인 부를 키웠고 많은 아내를 얻었으며 섹스 파트너를 거느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나쁜 일을 할 것이 없다고 우리가 생각할 즈음에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언덕에 아내들의 이방신을 섬기는 제단을 세웠습니다(왕상 11:1-8). 솔로몬의 일생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보여줍니다. 지혜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그리고 그가 주시는 통찰력을 사용할 때만 우리를 도울 수 있습니다.

실패에 대한 교훈

솔로몬이 우리에게 가장 크게 기여한 것은 그의 두 통거리와 실패들에 대한 사실성입니다. 솔로몬의 어리석음을 통하여 우리는 세상의 모든 지혜를 모으더라도 우리의 본성을 바꾸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기준에 못 미치게 사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우리자신의 기대치보다도 훨씬 아래에서 삽니다. 우리 중에 누군들 더 많이 사랑하고 더 강한 통제력을 갖고

정말 중요한 사안에 관심을 집중하기를 바라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으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더 많이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열망합니다.

그것이 아직도 우리에게 더욱 솔로몬이 필요한 이유가 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지혜에 따라 사는 삶에 실패한 것은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도 자기 자신으로부터 자신을 반드시 보호해 줄 수는 없다는 것을 깨우쳐 줍니다.

그것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되셨다고 썼을 때(고전 1:30) 사도바울이 의미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생각해야하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지혜가 되셨다고 말했을 때 바울이 의미한 것을 무엇일까요?

첫째, 솔로몬이 할 수 없었던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어리석은 일을 자주 했지만 솔로몬은 지혜를 인식할 수 있었고 지혜를 수집하기도 했지만 예수님은 그가 했던 모든 일에서 인격화된 지혜였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잘못 때문에 고통을 당했고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고통을 받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선물로 자신의 이름과 하나

님과 관계회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예수님은 실질적인 수단이 되셨습니다.
그 수단으로 우리는 지식을 사용하여 예수님께로 갑니다. 예수님 안에서 궁극적인 안전, 궁극적인 의미, 궁극적인 만족을 찾습니다.

다양한 충고에서 얻는 지혜



오래 전, 솔로몬은,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잠 11:14)라고 말했습니다.

이 오래된 잠언이 상처를 받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들, 그들을 도우라고 부름받은 목회자들에게도 지혜를 제공할 수 있을까요?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잠언 11:14)

실생활에서 받는 도전들

우리들 중 많은 사람들에게는 중독이나 알츠하이머, 자폐, 임상우울증, 가정폭력, 식이장애 같은 병을 앓는 가족들이나 친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외상후 압박이나, 성 정체성 혼란, 공황장애, 정신 분열증, 강박장애와 같은 병으로 고통을 받는지 우리는 다만 상상할 수 있을 뿐입니다.

위에 열거한 슬픈 상황들은 솔로몬의 지혜와, 그가 오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기위해서가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요 3:17; 12:47)라고 하신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극히 일부의 경우입니다.

비판이라는 추가되는 고통

정서적 정신적 건강 문제로 고통을 겪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관심을 보여야하는지 함께 생각해 보는 일은 아주 중요합니다. 만약 그런 고통과 싸우는 것은 믿음이나 기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든가 하는 조심스럽지 못한 방법으로 다가 가면, 신체기관의 근원적인 병인이 없는 경우 의도하지 않은 고통을 주게 됩니다.

어떤 지혜로 우리는 신체적 병에 원인이 있다는 것을 결정할 수 있습니까? 뜨거운 쇳덩이처럼 영혼을 시들게 하는 상처나 기억들과 만나게 될 때, 우리 중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영육간의 밀접한 관계를 이해하겠습니까? 음란물이나 성폭력, 성학대, 신문 일면에 나온 전쟁에 관한 기사제목, 길고 긴 내전의 역사 같은 이유들로 마음과 감정이 황폐해진 사람들을 감당할 통찰력이나 시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됩니까?

신앙의 압력

목회자들이 그런 위기상황에 부름을 받는다면 그들은 굉장히 당황할 것입니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한계를 절실히 느끼지만 회중이나 다른 지도자들로부터 성경에 나오는 모범대로 행동하고, 기도하고, 친교하는 것만이 정서적 정신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라는 압력을 받는 느낌을 가질 것입니다.

우리들이 생각하는 성경적인 해결방법들과 세상적인 해법사이의 긴장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영적 상황을 육체적이나 정

신적 질환으로 취급하는 실수를 범하고 싶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육체적이나 정신적인 병을 영적 상황으로 취급해서도 안 됩니다.

해답 찾기

우리는 모두 다 우리가 필요할 때 의지할 것은 하나뿐이라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 경계 안에서 성령의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무엇을 주실까요? 사실은 일용하는 양식이 농부들과 공장직원들, 소매상들의 수고로 우리에게 오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날마다 주시는 일용할 양식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습니다? 더구나 수고하는 사람들 중 많은 사람들이 교회 문턱을 넘지 않는 데도 말입니다.

이와 유사하게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의학적인 문제들, 정신질환, 중독, 전쟁 외상성증후군, 성폭행, 빈곤문제들에서 우리를 도와주는 건강관련 전문종사자들과 사회복지사들의 도움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습니까?

우리의 의도가 하나님의 지혜를 반영하는 도움을 받건하려는 것이라면, 우리가 의사에게 우리의 마음을 어

둑게 하는 기질적 요인에 대해 알고 싶다고 묻는 것이 어떤 해가 되는 것일까요? 혹은 전문가에게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 선택을 검사해달라고 부탁한다면 우리 믿음의 어느 부분이 고통을 받을까요?

목회자, 고통 받는 개인, 혹은 가족은 실제의 정신적, 정서적, 육체적 질환 가능성에 의해 복잡해진 영적인 문제의 무게를 혼자 참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것과 목회적 상담과 전문적 상담의 결합상담은 분리해야 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균형감각의 필요성

상담자나, 의사나, 후원모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에 대한 우리들의 개인적인 책임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의학적인 상담이나, 전문 상담자의 상담도 목회 상담이나 회중들의 돌봄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들 중 그 누구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거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거나 우리 주님께 의지하며 머물러 있을 것을 격려하는 사람을 떠나는 일이 있어서 안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날마다 깨닫지 못하면서 오랫동안 평화롭고 건강하게 사

는 것보다 육신이 병들고 영혼이 고통을 당하여 차라리 일찍 죽는 것이 낫습니다.

그러나 많은 상담자들의 안전장치를 통하여 하나님 이 더 많은 지혜를 주신다면 왜 그보다 못한 것을 구하겠습니까?

결론은 창조의 왕이신 그리스도는 모든 진리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목회자를 보내주셔서 성경을 펼쳐서 창조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셀 수 없는 많은 남너를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모든 것을 제공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줍니다.

그렇습니다, 위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반영하지 않는 나쁜 충고를 받는 일도 항상 있을 수 있습니다. 다윗 왕 시대에 왕이 영적 통찰력이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종당에는 왕을 배반하고 왕에게 반역한 아들에게 끔찍한 조언을 했습니다(삼하 16:20-23).

의사나, 상담자 혹은 영적지도자들이 고의성 없이 무심코 우리를 잘못 인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솔로몬의 지혜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잘못된 충고는 가장 믿을만한 정보에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충고가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들을 자세히 살펴보는데 있어서 다양한 시각에 무게를 두도록 격려를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잠 11:14).

우리가 이해 못할 일에 빠져 있을 때 어떤 사람들은 우리에게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바랍니다(잠 3:5-6). 그러나 사실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상담자들의 충고를 들으면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라고 충고하십니다.

다른 종류의 지혜



불교의 전승에 의하면 여행을 하는 두 승려가 강에 다다랐을 때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빠른 물살을 걱정하는 여인은 승려들에게 강을 건너게 해주겠느냐고 물었습니다. 한 승려는 주저했지만 다른 승려는 재빨리 그녀를 들어 자신의 어깨 위에 올리고 강을 건너 맞은편 강둑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녀는 승려에게 고마움을 표하고 떠났습니다. 승려들이 계속 길을 가는데 한 승려가 생각에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그는 참지 못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형제여, 우리의 영적 훈련은 여자와 어떤 접촉도 피하라고 했는데 당신은 여인을 어깨에 올리고 옮겨주었습니다!” “형제여, 나는 여인을

건너편 강둑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아직도 여인을 지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지혜에 대한 질문

두 번째 승려의 통찰력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재미있는 질문을 제기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종교의 도덕적 본보기와 영적 통찰력을 인정한다면 우리들의 신앙의 특성을 약화시키는 것일까요?

내가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나는 성경에 있는 한 가지 사안이 그 페이지 밖에 있는 지혜를 보는 것을 도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질문이 우리의 입장을 강화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보여주는 영감에 의한 기준에 따른 지혜를 인식하는 방법은 우리 주변의 세상에 대해 (1)자연적, (2)종교적, (3)도덕적으로 통찰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 주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세 종류의 지혜가 우리를 도와서 우리에게 (4)십자가의 구원에 대한 지혜의 필요성을 보도록 도우는 것입니다.

앞의 세 가지 종류의 지혜가 어떻게 우리를 도와서 그 과정에서 그리스도의 독특함을 타협하지 않으면서

우리 신앙 바깥으로 다리를 놓는지 좀 더 가까이 들여다봅시다.

자연적 지혜

구약성경의 잠언서는 세계의 문화들과 종교들에 대한 실천적 통찰의 예를 보여줍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우리들에게 동물들로부터, 농업으로부터, 삶을 사는데 대한 인간적 반영으로부터 어떻게 배워야하는지 보여줍니다. 수많은 그의 현명한 어록은 자연적인 지혜의 가치를 증명해주는데 이 지혜는 우리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을 관찰할 때 발견되는 것입니다.

· 현명한 사람은 개미에게 배울 수 없을 만큼 크지 않은 사람입니다(잠 6:6-8).

· 가장 중요한 전투는 마음 속 싸움입니다(잠 16:32; 25:28).

그런 자연적 지혜의 유익함은 더 깊이 사유하는 삶을 사는 사람을 돕습니다. 자연적 지혜의 불리한 면은 우리가 이룬 모든 것이 변하고 없어지는 이 세상에서는 자연적 지혜 바로 그것만으로는 우리에게 희망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종교적 지혜

여러 문화권의 사람들은 경이로운 자연세계가 사후 저 세상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생각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종교들은 신도들에게 무덤 저편에 대해 희망을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다음에 나오는 지혜의 말씀은 성경에서 찾은 것이지만 다른 종교들에서도 이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 이 세상에만 희망을 두고 있는 사람들은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전 2:15-20).

· 영원한 것보다 더 적절한 것은 없습니다(전 12:13-14).

사후세계에 대한 믿음으로 다양한 종교의 다양한 신도들이 죽음 저편에 있는 더 좋은 세상을 위해 희생제사를 드릴 용기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영원에 대한 시각은 여전히 문제로 남아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삶의 중요성을 축소하여 많은 사람들은 이 지구상의 자원을 낭비하고 불필요한 전쟁에 값을 치르고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들을 희생했습니다. 종교적인 지혜는 단순히 불멸에 대한 희망을 제공함으로써 사람을 선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도덕적 지혜

모세에서 예수님에 이르기까지 성경은 도덕성이 없는 영성은 모든 점에서 거짓 신들로부터 가난한 사람을 종교적으로 이용하는데 까지 이르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경에 의하면 도덕적 지혜는 너무 중요해서 우리의 창조주는 그의 율법을 통해 새길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도 새기라고 썼습니다(롬 2:14-15). 그 결과 성경에서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यो 선지자니라”(마 7:12)라거나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롬 12:21)라고 말할 때 성경은 일반적인 인간의 양심과 공명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우리는 불안정한 통찰력과 직면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랑에 대한 도덕적 지혜에 대해 생각할 때 우리의 문제는 얕에 있는 것이 아니라 행함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우리는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자기중심의 사고로 쉽게 빠져듭니다. 우리들 가운데 그 누구도 우리 마음이 바라는 만큼 사랑을 주거나 받지 못합니다.

구원의 지혜

우리는 모두 상처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옳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자연적, 종교적 도덕적 지혜 이상의 어떤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저지른 잘못과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저지른 잘못을 다루려면 구원적인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죄악 세상에 들어오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마 11:28)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리고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 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 데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막 2:17)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에게 주신 지혜입니다.

상처입고 무력한 사람들을 그리스도께서 초청하신 것은 새로운 일이 아닙니다. 수 세기동안 유대 선지자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필사적으로 하나님이 필요한 것밖히고 산산이 부서진 백성들의 어두운 골짜기에도 계신다고 선포했었습니다(시 34:18; 사 57:15).

그리스도가 하신 새로운 일은 위기에 있는 세상에서

그리고 인간의 역사의 중심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의 지혜의 비밀 베일을 벗은 것입니다.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의 행동으로 우리를 만드신 주님은 우리 죄를 대신하여 대속물이 되셨습니다(고전 1:17-31).

지혜로는 이것보다 더 심오한 것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인간 역사에서 가장 어둡고 가장 슬픈 순간이 수단이 되어 우리의 창조주가 우리에게 그의 성령의 빛과 그의 용서와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의 지혜로 황폐해지고 멸망하고 무력한 사람들이 사랑을 받은 대로 사랑을 배우고 용서를 받은대로 용서를 하며 구제를 받은 것처럼 구제를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의 은사를 이행한 것처럼(고전 1:30), 우리는 솔로몬의 지혜사랑을 더 잘 이해하며 읽습니다. 이제 우리는 실천적 통찰의 가치를 세상에 알리는 것 이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솔로몬이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잠 3:13-15)라고 말했다 때 우리는 지혜의 근본을 볼 수 있습니다.

- ① 절망에서 희망으로(절판)
- ② 교회는 누구에게 필요한가?(절판)
- ③ 오 신실하신 하나님(절판)
- ④ 복 있는 사람(절판)
- ⑤ 균형 있는 가정생활(절판)
- ⑥ 왜 살아야 하나?(절판)
- ⑦ 행복한 결혼생활(절판)
- ⑧ 남자다운 남자(절판)
- ⑨ 여자다운 여자(절판)
- ⑩ 걱정 없이 살고 싶다(절판)
- ⑪ 다시 찾은 사랑(절판)
- ⑫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 ⑬ 하나님과 친해지고 싶다
- ⑭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원하시는가?
- ⑮ 어떻게 하면 마음이 평안한 부모가 될 수 있을까요?(절판)
- ⑯ 결혼의 약속(절판)
- ⑰ 어떻게 하면 자신에 대해 긍지를 가질 수 있을까요?(절판)
- ⑱ 균형 있는 구원의 신앙
- ⑲ 균형 있는 기독론
- ⑳ 하나님을 친히 알 수 있다
- ㉑ 어떻게 성령에 충만할 수 있는가?
- ㉒ 교회지도자의 자격
- ㉓ 갈등해결의 방법(절판)
- ㉔ 깨어진 관계를 어떻게 해결하나?(절판)
- ㉕ 종교나 그리스도나 무엇이 다른가?(절판)
- ㉖ 돈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
- ㉗ 일에서 만족을 찾는 방법
- ㉘ 하나님은 내가 건강하기를 원할까요?
- ㉙ 인생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맞이하자(절판)
- ㉚ 금보다 귀한 것
- ㉛ 좋은 교회를 알아보는 방법
- ㉜ 확신을 가지고 하는 기도
- ㉝ 스트레스의 폭풍 속에서 살아남기
- ㉞ 분노가 타오를 때
- ㉟ 말이 상처가 될 때
- ㊱ 삶이 왜 이렇게 불공평할까요?
- ㊲ 하나님의 선택인가 인간의 선택인가?
- ㊳ 적그리스도란 무엇인가?
- ㊴ 실패를 이겨낸 다윗과 므낫세
- ㊵ 금보다 더 귀한 지혜

이 책이 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기를 원하시는 분께서는 뒤표지의 헌금안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